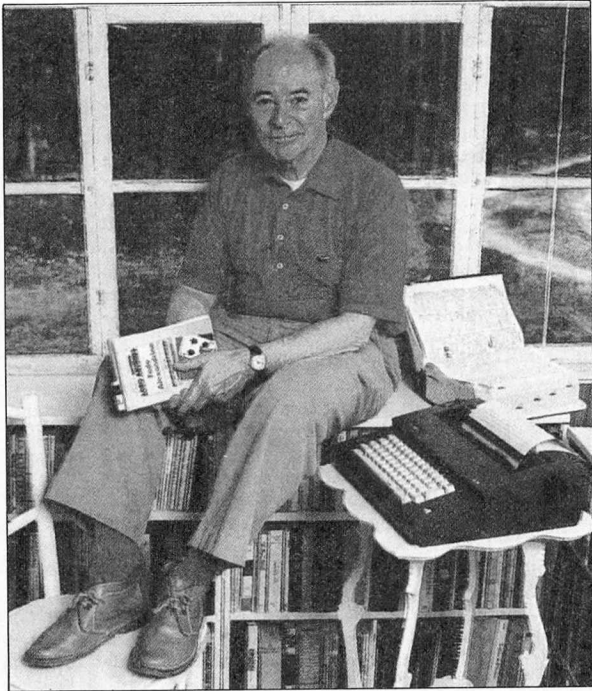


영어권 최고의 번역가 라바사

라틴문학보급의 숨은 공로자로 두각



“모든 명예는 작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미국의 번역작가 그레고리 라바사

‘제2의 창작’으로 꼽히는 번역작업. 원작의 언어가 지닌 미묘한 뉘앙스를 하나하나 살려 가면서 전체의 작품성에도 조화를 꾀해야 하는 길고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원작자와 번역자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깊은 신뢰감이 요구된다.

근작 「타임」지에 소개된 미국의 번역작가 그레고리 라바사(66)를 통해서도, 우리는 번역문학과 번역자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영어권 최고의 라틴문학 번역작가’로 손꼽히고 있는 그레고리 라바사는 지난 20여년 동안 30여권이 넘는 스페인 및 포르투갈어권의 문학작품을 번역, 세계문학계에서 소외되어 오던 라틴문학을 널리 소개하여 ‘문화의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의 명성은 국내에서보다도 오히려 라틴 문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아르헨티나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사 마르케스는 1967년 발표한 자신의 작품 「백년동안의 고독」의 英譯을 라바사에 맡기기 위해 3년씩이나 순서를 기다려야만 했었다.

쿠바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라바사는, 아버지 쪽의 혈연에도 불구하고 라틴문화와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뉴욕 시의 어린이로 성장했다. 쿠바로부터 이민해 왔던 그의 아버지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미국인으로 생활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가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다투마우스 대학 재학시절.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미국전략사부국(OSS)에 소속되어 비밀암호해독 업무를 맡게 되는데, 다소 독특한 이 암호해독작업이 어찌면 그의 번역작가로서의 운명을 시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전 후 컬럼비아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 재직하게 된 그는 「오디션 리뷰」라는 문예지의 편집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잡지는 해마다 유럽 및 라틴문화권에서 발표된 최신의 문학작품을 각각 두편씩 번역하여 실고 있었는데, 특히 라틴문학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다 못한 라바사가 직접 번역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30여년간 그의 천부적인 언어감각을 통해 수많은 라틴문학들이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1967년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훌리오 코르타자르의 「돌차기놀이」(Rayuela) 번역으로 ‘전국도서상’을 수상했고, 지난 5월에는 “문학의 국제적 교류에 미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휘틀랜드재단에서 수여한 1만달러의 상금을 받기도.

번역작가에게 위와같은 치하의 말들이 쏟아지기는 구미문학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바사 자신은 “모든 명예를 작가들에게 돌리고 싶다”며 겸손해한다.

“특히 돈키호테를 재발견한 마르케스와 루이스 보르게스 두 작가에게 명예가 돌아가야 한다. 나의 견해로는 세르반테스야말로 최초의 리얼리스트였다. 그러나 영국인들에게 스

페인의 식민지를 뺏앗기게 되면서 스페인의 문학 역시 약탈당하게 됐다. 이후 대다수의 남미문학은 단순히 유럽문학을 모델로 삼아 흉내내어 왔을 뿐이다. 하지만 남미의 삶과 자연 환경은 구대륙의 문학양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생기를 지니고 있다. 이제 일단의 라틴문학작가들이 과거의 법칙들을 깨부수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 자신의 삶이 살아 움직이게 된 것이다”라고 라바사는 라틴문학 특유의 생명력을 이야기한다.

특히 그는 신진작가 발굴에도 힘을 기울여, 잦은 남미여행을 통해 본국에서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찾아내 영어권에 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비롯해 몇 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라바사이지만, 외국어의 영역보다는 영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훨씬 까다롭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美 베스트셀러의 산실 ‘홀린스 마피아’

미국남부에 위치한 한 작은 여자대학이 최근美文단의 일각에서 조용한 화제가 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블루리지 마운틴스의 조용한 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홀린스 칼리지(Hollins College)는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여자대학으로, 최근까지만 해도 부유한 남부가정 출신의 여학생들이 최종 신부수업으로 교양을 쌓기 위해 입학하던 학교였다. 그러나 30여년 전부터 이 대학의 영문학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창작훈련과정’이 발군의 기량을 갖춘 신진작가들을 배출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미국문단에서 ‘홀린스 마피아’라는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위신은 전한다.



홀린스대학 영문학과장 R.H.W. 딜라드

졸업생 명단 속에서 아직은 국내독자에게 익숙한 작가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홀린스 출신의 작가들이 해마다 수십권의 시와 소설을 발표하고 있고, 다수의 폴리처상 수상자들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홀린스 ‘창작훈련과정’의 명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들 중 홀린스대학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으로는 윌리엄 골딩을 꼽을 수 있는데, 그의 작품 「파리대왕」이 한창 미국대학가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당시 그는 홀린스대학에 거주하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현재 1년코스의 대학원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창작훈련과정’은 1957년 남부출신의 평론가 루이스 D. 러빈에 의해 설립됐다. 당시 영문학과장이었던 그는 학풍을 쇄신하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녀구별 없이 모든 작가 지망생 또는 신진작가들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개설했다. “학교를 위해서나 여학생들을 위해서도, 읽고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남학생들이 필요했다. 시골에 파묻혀 샌님 같은 사립학교 남학생들만 보고 자라온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남학생들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고 러빈은 흐뭇한 마음으로 개설 당시를 되돌아보기도.

첫해에 입학한 학생은 세명. 그러나 1967년 새로이 학장으로 부임한 조지 가레트에 의해 창작훈련과정도 대폭 개편, 소설과 시로 전공분야를 나눠 해마다 12~15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됐다.

1971년 가레트에 이어 학과장에 임명된 R. H.W. 딜라드는, 미국내에서는 최초로 현역작가들에게도 훈련과정의 입학에 허용해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상당수의 유명작가들이 장·단기적으로 홀린스를 방문해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와 문장을 새로이 가다듬곤 했으며, 이처럼 작가들의 발길이 잦아지게 되자 자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던 것이다.

“홀린스대학의 교수들은 과연 이 작품이 출판될 수 있는가 하는데는 관심이 없었다. 학생 자신이 그의 능력을 다해 최고수준의 작품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만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첫 졸업생 중 한 사람인 소설가 헨리 테일러는 회상한다. 사실 ‘창작훈련과정’의 교수진은 “작가 지망생이나 신진작가들이 그들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교육목적”이라고 말하며, 글 쓴다는 것 자체를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고 활기찬 연구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세계에서 출판되는 작품의 반수 이상, 그것도 최고수준의 작품들이 홀린스대학의 교수진과 졸업생들에 의해 발표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시인 프레드 채플은 다소 과장스레 말하지만, 미국문단에서 ‘홀린스 마피아’의 활

약은 확실히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호주에 부는 '빅 북' 열풍

호주에 '빅 북(Big Book)' 열풍이 불고 있다. 과거 수년간 호주의 교육계에서는 국민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프로그램'을 활발히 실시해왔는데, 이러한 교육계의 관심에 따라 자연 많은 출판사들도 어린이의 지능발달과정에 알맞는 다양한 책들을 출간해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 호주 출판계에 나타난 '빅 북' 현상 역시 대형 책이야말로 아동 독서교육에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교육계 종사자들의 인식을 적극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빅 북'은 책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으며, 특히 친구들과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심을 길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호주 출판계에서 '빅 북'이 상업화되기까지는 많은 고충이 있었다. 교육적 효과는 인정됐지만 워낙 제작단가가 비싸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출판사들로서는 싹트 손을



'빅 북'을 사이좋게 함께 읽고 있는 호주의 어린이들

대기가 어려웠던 것. 따라서 과거에는 '빅 북'이 필요한 경우, 교사들 스스로가 학생들을 위해 소수 한정판으로 자비출판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교육계에서 '빅 북'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상업적 가능성을 간파한 몇몇 출판사들이 '빅 북'을 출판하여 대성공을 거두게 되자 바야흐로 호주 아동도서 출판계에 '빅 북'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출판사 간의 가격경쟁에 힘입어 권당 24~3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판계 종사자들은 '빅 북'출판 경쟁의 과열화 조짐에 대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신중한 기획에 따른 양질의 '빅 북' 출판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미 벨스, 애쉬톤 메투엔 등 대표적인 출판사들이 자사에서 출간한 '빅 북'의 대다수를 북미·유럽시장에 활발하게 수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기타 출판사들도 동

화작품에 치중하던 종래의 출판방향에서 벗어나 년픽션과 수학·과학분야의 책들을 펴내는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이와같은 추세를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자칫 지루하고 어렵게 느끼기 쉬운 수학·과학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빅 북'의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아동도서의 혁명'이라고까지 자랑을 아끼지 않는 호주의 '빅 북'들이 이제는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어, 최근들어 국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호주 출판계의 저력을 새삼 확인케 한다.

사라 퍼거슨妃 동화작가로 데뷔

영국 황실에 새로운 얼굴의 동화작가가 탄생한다. 최근 영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왕자비인 사라 퍼거슨이 「버지(Budgie)」라는 제목의 작품을 포함한 두편의 동화를 완성, 사이몬 앤드 서스터 출판사를 통해 내년 중으로 출간하기로 정식계약을 맺었다는 것.

'퍼기'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사라妃는 결혼 전 출판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사이몬 앤드 서스터사의 아동도서담당 편집자인 드리즈 존스톤-버트과는 지난날 막역한 직장동료였다고.

영국 왕실에서 작가가 탄생하게 된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인물로는 지난 1980년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로흐나가의 노인」이란 동화책을 출간, 매년 8천부씩 꾸준히 팔려나가는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될 사라妃의 작품은 평소 그녀의 활발한 기질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녀의 두 작품에 등장하는 '벗지'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말쑥꾸러기였다 모험심으로 가득찬 꼬마 헬리콥터. 작품의 아이디어는 지난해 사라妃가 헬리콥터 조종훈련을 받으며 떠올랐다고 한다.

한편 관례적으로 왕가의 일원이 책을 낼 경우 대행업체인 앤소니 윌튼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라妃는 '자신의 독자적인 선택'에 따라 뉴욕의 모트 잔클로우社를 대행사로 지정해 작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사라妃 자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판매수익의 일부는 '앤드류왕자 기금'에 기탁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남부 버크셔주에 있는 그들 저택의 집값을 물어나가는 데 쓸 계획이라고.

—오애리 기자

책의세계

세계 기록의 총집결 재미있는 정보담은 「기네스 북」

김호근

프리 에디터

별의별 희한한 일들과
괴상한 기록을 담은 「기네스 북」은
23개 언어로 연간 5천여만권이
팔리고 있다.



처음 듣는 사실이나 의외의 일, 놀라운 기록, 또는 스캔들에 사람들은 흥미를 갖고 흔히 이러한 것들을 화제로 삼는다. 이런 재미와 호기심거리는 옛것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에 이르고 또 지금도 새로운 사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는데 비해, 이를 인쇄물로 기록하여 책으로 상품화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이것은 "진지하지 못하고 잡스럽다" 혹은 "교양이 없다"는 생각에 기인하는 듯하다.

'사소한 것'인 이런 류를 통틀어 '트리비아'(TRIVIA)라고 부르는데, 「출판저널」 제13호 참조) 중요성보다는 재미를 앞세우는 이런 책들이 쏟아져나온 것은 서양에서도 근래의 일이다. 오래전부터 통속소설같은 트리비아가 있어왔지만, 실상, 생활에는 '재미'도 필요하고 진지한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욱 실제적이기도 하다.

동서고금의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민족의 문화나 풍물도 즉시 견문할 수 있는 시대니만큼 시각을 달리한 이상한 일들이 더욱 많이 펼쳐지고 있다.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나 기괴한 기록, 통계들은 흥미를 끄는 새로운 분야가 되었다.

「기네스 북」(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은 이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다.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고 수정하며 해마다 다시 펴내지는 이 책은 연간 23개 언어로 약5천만권이 팔리고,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있다.

아일랜드 기네스맥주회사의 경영인 휴비버경은 사냥을 할 때 늘 새를 놓치곤 했다. 그는 새가 나는 속도를 책에서 찾아보려고 했으나 알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그는 "기록들을 모아 놓은 책이 있으면 술집에서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재미도 있을텐데"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기네스 북」이 탄생된 동기이다. (지금도 새판의 첫 서문은 기네스사의 대표가 항상 쓰고 있다.)

휴비버경은 노리스와 로스 맥휘터(Norris

& Ross McWhirter)와 런던의 교외에서 처음 만났다. 그들은 22시간이나 의사방해연설을 한 미국 의회의 기록, 가장 넓은 강, 터키어의 불규칙 동사 등을 얘기했는데, 휴비버경은 이들에게 매료되었다. 이에 이들이 편집인으로 소개되었고 그후 1년이 못된 1955년 8월, 198페이지 분량으로 첫권이 탄생되었다. 런던의 큰 도서공급자는 곧 5만부를 판매했고, 그 이듬해 미국판이 나왔다.

맥휘터형제는 1925년, 신문편집인을 아버지로 태어난 쌍둥이. 읽을거리가 많은 환경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신문에 난 재미있는 정보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75년 북아일랜드 분쟁에 관련, 동생 로스가 저격당해 죽은 이후 노리스 맥휘터만이 편집자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런던 엔필드 교외에 있는 편집실은 「기네스 북」에 기록되고 싶어하는 전세계 각종 기록보유자들의 편지가 연간 2만여통 가량 배달된다. 이제는 금붕어삼키기나 독사와 같이 지내기, 술마시기 등의 위험한 기록은 신지 않는데, 이런 제한사항들은 책 앞에 밝혀져 있다.

TV를 통한 기네스올림픽이 열리고 기네스기록을 응용한 여러 출판물이 나오는가 하면, 1976년에는 미국판의 출판인인 보엠(D.A.Boehm)과 맥휘터가 함께 '기네스전시홀'을 엮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마련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입체물과 필름 등의 멀티미디어쇼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큰 도시에는 대부분 기네스박물관이 마련되어 있다. 재미있는 '세계적인 기록'의 사업은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이다.

「기네스 북」만큼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역사가 한결 긴 J.N.케인의 「유명한 첫번째 사실」(Famous First Facts)은 1933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 기록을 추가하여 두꺼운 책자로 발행되고 있다. 발명, 발견 등 처음 생긴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